

전남도교육청 평화통일 교육 대폭 늘린다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평화통일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남북해빙 무드 속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통일열차 대장정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 통일 수업 및 연수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전남통일희망열차 학교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 3월 도내 고교 1학년 학생 80여명을 선발한다. 열차학교는 통일캠프(연 5회), 통일자치학교(통일열차 대장정), 통일열차 대장정, 졸업식, 통일희망선포식 등으로 짜인다.

연중 진행되는 열차학교의 백미는 단연 통일열차 대장정이다. 여름방학기간 14박 15일 일정의 통일열차 대장정 구간에는 북한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북한

통일희망열차 학교 운영...북한 경유 추진 학생 통일 수업·교원 평화 통일 연수 강화

경유 성공을 위해 남북교류 협력이 있는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아래 북측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쩍 가까워진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전남 학생들이 열차를 타고 목포역을 출발, 북한을 지나 중국 등지에 산재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탐방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북한을 경유하는 통일열차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이라며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 중국에서 열차나 버스를 타고 북한을 잠시나마 들여다보는 일정 또는 북·중 접경지와 만주, 연해주, 상해, 하이빈 등지에 산재한 항일유적지를

둘러보는 일정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전남통일희망열차를 새롭게 운영하면서 기존 전남독서토론회 열차를 폐지한다. 기존 전남독서토론회 열차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끄는 프로그램이었다면, 통일희망열차학교는 탐방지 선정부터 탐방장소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까지 대부분 학생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학생통일 수업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연수도 강화한다.

5월 넷째 주에는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통일교육 주간 계기교육을

한다.

연중 초등학교·중학교 300 학급을 선정해 평화통일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해 평화통일 강의를 별도로 진행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평화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는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담고 있다.

관심 있는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해왔던 평화통일 연수도 올해부터는 22개 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통일 교육 추진단을 운영하고 평화통일 교과서를 제작,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 '베트남 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인기

호치민 진출 한국기업 정보 제공

전남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자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의 취업을 돕는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대는 최근 3박4일 일정으로 전남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남대에 유학중인 베트남 출신 학생들이 베트남 호치민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업 인사담당자 취업특강을 통해 취업 컨설팅을 받는 것은 물론 현지 기업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진행됐다.

전남대는 또 전남대총동창회, 베트남

동창회지부와 함께 '베트남 동문의 밤' 행사를 마련해 베트남 현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특강, 베트남 유학생 산·후배 간 만남의 시간을 갖는 등 취업을 위한 직접적인 실무 노하우를 듣고 배우게 했다.

정인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은 "베트남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베트남 동문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전남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들이 현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남대는 지난 1월 15일-1월 19일 중국 상해에서도 취업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진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재학생 직무체험' 평가 우수기관 선정

수행실적·만족도 높은 점수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재학생 직무체험' 운영기관 성과평가에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여대 취업지원센터(센터장 이준수)는 수행실적, 수료율, 만족도 평가 등에서 96.91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재학생 직무체험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경험을 확대하고, 경력 형성 및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진행했으며, 직무체험 운영대학 79개 중 상위 20% 대학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등록금 동결

입학금 작년 이어 20% 인하

동신대학교(총장 최일)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학부 신입생 입학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를 인하했다.

오는 2021년까지 매년 20%씩 학부 신입생 입학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동신대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1년 가운데 10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왔다.

이주희 동신대 기획협력처장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예비 신입생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모습. 동신대학교는 최근 5일 동안 동신대 중앙도서관 1층 동아홀과 정보전산센터 강의실에서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예비 신입생 158명이 참여해 전공·교양 수업에 필요한 기초 학문을 학습했다. (동신대 제공)

봉선·수완지구 등 학원 밀집지 사교육 '꼼짝마'

교육부·국세청·경찰 등 합동

11월까지 총 10차례 단속

드라마 'SKY캐슬'을 계기로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이 학원 등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정거

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최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 등 수도권, 광주·부산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광주는

사교육 시장이 크게 형성된 봉선동, 수완지구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고액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을 점검한다.

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한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자 이를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과 '영어

유치원' 등을 추가 점검하고, 감사 채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한다. 7월에는 방학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사·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눈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 외국어·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 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어 교육·문화체험 왔어요"

중·고교 교육·문화체험 왔어요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중국 북경교육양성학교 학생 20여 명이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체험을 위해 조선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재형)를 방문했다.

중국 학생들은 27일부터 31일까지 조선대에서 외국인인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조선대학교 캠퍼스 투어, 양림동, 아시아문화전당, 총장로, 광주향교 등을 방문하고 한국의 한복, 다도, 예절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예정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중국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 유학생생활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수를 통해 조선대학교를 알리고 우수한 유학생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호남지역 최초 국제협력선도대학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학생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케냐, 베트남, 중국에서 세종학

교를 운영하며 한국과 한국문화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대는 2018년도 'ASEAN 국가 우수 이공계대학생 연수기관'에 포함·제주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2018~2019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